‘나사 풀린’ 산업 현장

광주·전남 산업재해 3년 연속 증가…추락 등 3대 재래형 재해가 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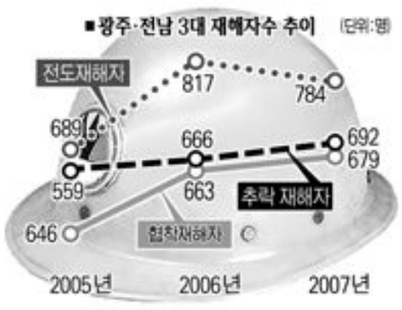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의 산업재해가 매년 증가추세여서 안전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달 30일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관형)에 따르면 지난 2005~2007년 3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의 산업재해자는 1만2천64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재해자 26만5천468명의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산업재해자는 2005년 3천998명에서 2006년 4천233명, 2007년 4천40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중 재래형 재해로 불리고 있는 협착(기계 등에 끼이는 것)·전도(미끄러지는 것)·추락 등 3대 재해자가 3년 동안 6천195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1%에 달했다.

협착 재해자(1천998명)는 같은 기간동안 646명→663명→679명, 추락 재해자(1천917명)는 559명→666명→692명으로 늘었다. 전도 재해자



(2천290명)는 689명→817명→784명으로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33명 줄었다.

업종별로는 협착은 제조업에서, 추락은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특히 조선업에서는 협착과 추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재해자 26만5천468명 가운데 3대 재해자는 49.35%인 13만1천29명으로 협착 4만9천87명, 전도 4만7천607명, 추락 3만4천335명이었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자 광주지역본부는 올해 3대 재해다발업체를 형태별 업종군 및 사업장군 등 두 그룹으로 분류, 8천466개 산업현장을 집중 관리해오고 있다.

또 조선업종 재해예방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대불 SAFETY ZONE(안전지대) 운영 ▲온라인 카페 운영 등 커뮤니티 활성화 ▲모기업·협력업체 상생 협력지원 등 사업과 함께 ▲조선업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과정 개설운영 ▲조선업 릴레이 캠페인 등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관형 광주지역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다발하는 3대 재래형 재해만 줄여도 재해 감소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안전공단은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전남 미분양 주택 18,000채

민간업체 신고 잇따라 사상 최대 … 전국 16만가구 달해

‘6·11 지방 미분양 대책’ 이후 민간업체들의 미분양주택 신고가 잇따르면서 광주·전남의 미분양주택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광주·전남의 미분양주택은 1만8천627가구에 달한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 6월(1만4천803가구)에 비해 29.9%(3천824가구) 늘어난 것으로, 지역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수준이다.

광주·전남의 미분양 급증은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미분양 물량을 지자체에 추가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6월11일 지방 미분양 대책을 통해 미분양 신고분에 한해서만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전남은 미분양 규모가 ‘6·11대책’ 이전인 지난 5월(1만568가구) 이후 두 달새 76.3%(8천59가구)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 새로 분양된 아파트(1천533가구)의 5배 수준으로, 업체들의 미분양 추가 신고 사례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 시·도의 경우도 비슷하다. 7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은 16만595가구로, 한 달새 9.1%(1만3천365가구)나 늘었다.

전국의 미분양이 16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 199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며, 지금까지는 1995년 10월의 15만9천471가구가 최고였다.

미분양주택은 4월과 5월,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정부가 ‘6·11대책’을 발표한 이후 6월에만 1만9천60가구가 늘어난 데 이어 7월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도 한 달새 15.3%(5천372가구)나 불어난 4만562가구에 달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역 경제 최대 현안

“인프라 개선”

대한상의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1개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역별 경제현안 과제를 취합한 결과 공항과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사용여건 개선과 산업용지 확충과 관련된 내용이 50%에 달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경제현안과제’라는 건의문을 제출하고 인프라와 산업용지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한상의가 건의문에서 다룬 지역경제 현안은 ▲SOC 및 건설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 ▲환경규제 ▲조세 및 금융 ▲노동시장 및 노사문제 ▲무역 및 관세 등 6개 부문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역경제계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의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혼수 침구세트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회) 자미온 매장은 혼수시즌을 맞아 지난 달 29일 동양적인 느낌이 풍부한 제노이 침구세트를 선보여 젊은 예비 부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광주점 제공〉

광주시, 中·홍콩서 575억달러 투자 유치

중화권 투자유치에 나선 광주시 방문단이 중국·홍콩 기업들로부터 575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광주시는 “최근 지역 중소 수출업체 8곳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과 홍콩에서 시장개척 활동을 벌여 6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과 575만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입주한 진공청소기 제조업체 해보산업이 가장 두드러진 실적을 올렸으며 모바일게임 전문업체인 인터세이브를 비롯해 ㈜유니통상, 레미스페셜티, 비단꽃향무 등도 호평을 얻었다.

광주시는 또 홍콩 여행업계 1위인 ㈜동영유 여행사와 홍콩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중국 광저우 등의 유수 여행사와도 협약을 통해 다음 달부터 여행객을 모집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아 노사 ‘2008 임단협’ 완전 타결

기아자동차 노사의 ‘2008 임금 및 단체협약’이 완전 타결됐다.

기아차는 지난달 26일 잠정합의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전체 조합원 3만58명 중 투표인원 2만8천809명(투표율 95.8%)이 투표한 결과 임금부문에 76.84%, 단체협약에 72.27%가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조만간 경기도 소하리공장에서 조남홍 사장과 김상구 노조지부장 등 양측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노사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돈가뭄 中企 ‘숨통’ 트이나

信保·技保, 회생특례자금 추가 지원 검토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경색과 관련해 정책자금 공급을 늘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배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달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자금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회생특례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특례자금은 올해 200억원 규모로 현재 70% 정도 집행됐기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는 재해복구자금(500억원 규모)의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태펀드에서 쓸 수 있는 재원 1천억원도 조기에 집행해 민간 벤처 펀드의 투자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모태펀드 1천억원 출자시 3천억원의 민간 투자재원이 결성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결성된 모태펀드 출자조합(2조4천856억원 규모)을 통해서도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배수를 늘려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보증배수는 신보는 10.9배, 기보는 6.5배다.

정부는 키코(KIKO) 피해대책으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은행과 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되 신·기보의 추가 보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불완전·불공정 판매에 따른 키코 피해사례를 접수, 조사하고 키코 거래은행 13개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씨엠비광주방송 및 (주)씨엠비웹앤티비**은 방송허가 구역인 광주광역시 서구·남구·광산구 지역에서 2005. 3. 31. 자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08년 10월 2일

주식회사 씨엠비광주방송 대표이사 이인석, 이근호
주식회사 씨엠비웹앤티비 대표이사 이인석, 이근호